

지역 소식통

김제시 기록화 사업 시작  
역사, 문화 등 영구적 보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2024년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기록화 사업'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억과 소장 자료를 기록화하여 각면의 역사, 문화, 생업, 생활환경 등의 모습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존의 기록화 사업은 개발 예정 지역 혹은 특정 사건 등을 배경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시는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타 시군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는 죽산면, 부량면, 청하면, 성덕면을 대상으로 하며, 하반기에 기록집을 발간하고 전시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 일환으로 2024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7대의 전기굴착기를 보급한다.

전기굴착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지 60일 이상 된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에 소재한 법인, 사업자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다.

이번 사업으로 전기굴착기를 구매하는 경우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최소 9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최소 4,73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기종별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아 굴착기를 구매하는 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기종별 사진 및 규격, 성능 등 자세한 사항은 무궁화차 통합 누리집(www.ev.w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 김제시 지역 관광활성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 DMO 등 연이어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4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가투쌀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 활용 홍보·마케팅 지원 등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에 약 2억원의 간접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는 전국적인 대표 쌀 주산지인 김제가 '가투쌀'을 활용해 쌀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며 미래선도형 쌀 가공산업 생태계를 구

축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에서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와 가공식품 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와 연계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하며 상권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7년 연속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연이 확정됐다. 에어쇼 공연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새만금 바람센터에서 'Full-display(약 25분)'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공모심사(DMO)에서 신규지자체로 선정되며 5

년동안 최대 국비 6억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는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관광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을 통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체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해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연이어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관광인프라 활성화와 내실 있는 축제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지역관광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의회의 서남용 의장이 지난 16일 고산면과 비봉면 일원에서 지역민들의 고충 민원을 청취했다.

## 완주군의회의 서남용 의장, 생활민원 현장 점검

### 고산면 및 비봉면 일원 방문

완주군의회의 서남용 의장이 지난 16일 고산면과 비봉면 일원에서 지역민들의 고충 민원을 청취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마련한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해 김규성 완주군의원, 안형숙 비봉면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의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평소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산면과 비봉면 일원의 도로 구간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장은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이미지 방지턱 포함) 및 반사경,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방침이다.

서 의장은 "이번 현장 점검은 민원현장을 찾아 군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책과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행복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대응방향 논의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제1차 기반시설 분야 전략회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필요성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기반시설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제1차 기반시설 분야 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새만금 주요기반

시설 사업 추진현황 및 기존 발굴사업 필요성 설명,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발굴된 사업들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새만금지역의 기반시설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나, 현재 매립이 완료된 농생명용지에 기반시설이 설

치되지 않아 새만금수목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등의 시설 준공 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공주도로 설치해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부의 기본계획(MP) 재수립 방향에 맞춰 김제시 미래성장 견인할 정책을 개발하여 기본계획 반영을 목표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근접 개발사업단장은 "2021년 기본계획 건의사업 중 미반영된 심포배수지 조성, 배후도시용지 연결 도로망 구축, 주요 SOC 공공주도 조기 개발사업을 다시 건의하고 추가 발굴된 폐기물 부지 위치 변경, 새만금~김제~혁신도시 연결도로 국도승격, 새만금 남북3축도로 조기개발, 새만금 신항 1단계 배후부지 확보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부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는 지난 16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제1차 기반시설 분야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 완주군,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관련 설명회 30일 개최

완주군이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오는 30일 추진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중대재해처벌

법이 올해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완주군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교육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서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삼봉지구에 위치한 공립 중흥바른어린이집 개원식. <사진=완주군청 제공>

## 완주 삼봉에 공립 중흥바른어린이집 개원

### 5개 보육실로 65명 보육 가능

완주군 삼봉지구에 공립 중흥바른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열린 개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집의 첫발을 축하했다.

삼례읍 삼봉5로 중흥S클래스 단지 내에 위치한 공립 중흥바른어린이집

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이날 개원식을 가졌다. 연면적 331.2㎡ 규모에 5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교사실 등을 갖췄으며, 14명의 교직원과 65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보육실 면적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넓은 편이며 채광과 안전이 확보된 실내의 활동공간으로 조성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